KIMS Periscope
For God · For Nation · For Peace

제 386 호 2025 년 6 월 11 일

인도 태평양 지역: 러시아에 이익이 될까?

유럽 중심에서의 군사 작전은 모스크바의 동부 국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와의 무역 확대와 북한과의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구축하였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 동시에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은 모스크바에 의해 "비우호 국가"목록에 포함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새로운 군사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시아가 동부 국경에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ussi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Yury Sigov

미국 의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지정학적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동시에 이전에는 이 지역 내 미국의 우위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러시아, 중국, 인도 및 여러 아세안 국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호적" 국가와 "비우호적" 국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후자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라이벌, 심지어는 적국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분쟁의 발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크게 변화시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의 소위 "동방 중심 정책(Pivot to the East)"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지난 3 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간의 양국 간 무역은 2,300 억 달러에 달했고, 러시아와 인도 간의 무역은 6 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양국에 대한 러시아 석유 수출의 전례 없는 성장에 의해 달성되었으며, 이 무역은 러시아 측에서 엄청난 할인으로 이루어지며 모스크바에 일부 금전적 수입을 안겨주지만, 과거의 다른 중요한 무역 파트너를 포기하며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두 대외 무역 파트너였던 일본과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주요 무역 시장에서 고립시키고 동부 국경에 상당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세력 판도의 변화

냉전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소련과 미국 간의 해군 경쟁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미국 정치학자들이 태평양 지역을 인도양과 "연결"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 판도에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영향력 있는 아시아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이 포함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아세안의 일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바다를 동맥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바다는 세계 4 대 경제 대국의 해안을 둘러싸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75%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지구 전체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해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이 주요 무역 및 운송 경로에 대한 완전한 패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력은 이 지역의 주요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함대를 합친 전력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주변의 분쟁 과정과 홍해 유역에서 미국과 영국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소위 "모기 함대"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그 힘으로 훨씬 더 큰 선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침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얕은 바다와 좁은 해협을 가진 동남아시아의 경우,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협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주요 운송 및 무역로가 쉽게 차단될 것이다.

주요 해군 세력 분석

이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기 전에, 태평양과 인도양 유역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강대국의 해군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러시아 동쪽 국경지대에 있는 러시아 해군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록 태평양과 인도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태평양 함대 해병대 부대와 지원 항공의 일부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여름 러시아와 북한은 가을에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했는데, 이는 군사적 충돌이나 주권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서로에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주요 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그 해역에도 해당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오늘날 태평양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 전체에서 헤게모니로 남아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진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된 항만과 조선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중국의 힘의 성장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과제가 되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이며, 중국을 봉쇄하는 임무를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부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 내 동맹과의 연합(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을 계속 형성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성장하는 힘에 대한 중요한 도구이자 균형추로 간주되는 인도와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태평양에서 미국인들은 소위 "도련"이라는 개념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첫 번째는 일본, 한국, 대만 및 필리핀 해안을 따라, 두 번째는 같은 일본, 괌 섬 및 뉴기니까지, 세 번째는 하와이 제도, 통가 섬 및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사슬을 따라 이어진다.

중국의 해군력 급성장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상대인 중국의 경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야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 수행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난 세기 말부터 "중국의 경제적 기적" 덕분에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장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조선 및 항구 기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10 년 동안 중국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다. 중국 해군은 중국 연안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적 활동 지역에서 중국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은 강력한 상선 해군을 보유하여 세계시장에 중국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어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우방국'에 군함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거나 기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국 함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인도의 해양 대국 부상

중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과의 주요 군사 분쟁이 시작된 1971 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인도의 경제적·정치적 입지는 미미했고, 델리는 인도양이나 태평양에서 해군 야망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금세기 초, 인도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해군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조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도는 여러 항공모함, 상당수의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제외한 이 지역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도양에서 중국의 존재는 크지 않고, 인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인도의 군사 및 정치 엘리트들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역내 주요 경쟁자로 간주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인도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인도양의 일종의 비공식적인 주인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델리는 자국 영토와 작은 섬나라(모리셔스와 세이셸)의 영토에 해군 기지와 레이더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인도 방어의 핵심 요소는 인도 해군 기지가 위치한 안다만 제도로, 안다만 해에서 벵골만으로 나가는 출구를 통제하고 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국방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페르시아(아랍) 걸프 지역에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급격히 늘리고, 동시에 유조선을 통한 인도 석유 공급을 여러 차례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자국 내 항구와 인프라 개발을 위해 사가르말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타 지역 세력들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초기에는 여러 유럽 국가의 영향력과 존재가 눈에 띄었다면, 지금은 미미하다는 것이 주목할 점일 것이다. 아마도 인도양과 태평양 모두에 섬 영토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만이 이 지역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연방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홍해 지역의 에리트레아 및 이집트와 협력)도 이곳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의 존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주요 파트너이며, 중국을 봉쇄하는 두 개의 '도련'의 중요한 지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없더라도 일본은 지난 10 년간 자위대의 군사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일본 해군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함정 수에 근접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륙 국가인 호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는 여전히 중국이다. 그리고 캔버라는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서방 동맹국에만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주는 급격한 반중국 입장을 취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모든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발생할 경우 태평양과 인도양의 남쪽 측면을 책임질 것이다. 이 경우 뉴질랜드의 역할은 아시아-태평양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서방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이 이끄는 연합에 미미하나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영토와 인구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세안이 출범한 이후 이 지역의 국가들은 본격적인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연합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다.

필요한 경우 최소 4 개 아세안 국가가 말라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운송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대형 항구와 군사 기지가 있는 싱가포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국의 해상 항로의 취약성은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의 영향력을 줄이고 태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크라 지협에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의 요인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 자바와 수마트라 사이의 순다 해협,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사이의 마카사르 해협, 자바와 발리 사이의 발리 해협, 칼리만탄과 벨리퉁 사이의 카리마타 해협, 술라웨시와 할마헤라 사이의 몰루카 해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외교 정책의 본질은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주요 분쟁 입장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와 원활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예: 워싱턴의 현 행정부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는 비생산적일 수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미국이 그러한 압력을 행사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도울 것이며, 이는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해군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카르타는 해군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은 연안 해역에서 순찰과 해적 퇴치 및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시작되면 인도네시아는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함대와 싸워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해상 드론, 이동식 해안 대함 시스템, 자율성과 강력한 무기를 갖춘 저소음 잠수함, 적 잠수함을 상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어뢰 기지, 비밀 원격 채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분야에서 자카르타는 이미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을 필요로 할 것이다.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내 러시아의 입장에 관해서는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주둔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모스크바는 인도양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수단에 러시아 해군 기지 설립 합의가 있었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실현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모스크바는 수단에서 신뢰할 수 있고 수익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에리트레아 정부의 유사한 기지 건설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태평양에서는 러시아 해군의 존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추세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아세안 국가, 특히 베트남 및 미얀마와의 협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러시아 화물 운송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러시아 선박은 제재 화물을 운송하면서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억류되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 항구는 미국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입항이 금지되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은 현재 전체 항로를 따라 해군 주둔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정 해안 지역에서는 소위 "우호 국가"의 함대에 보호를 요청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우호 국가로 구분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역내 여러 국가와 함께 항만 개발 및 터미널 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제재 선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흑해, 발트해 및 북부 함대에 비해 다소 차분한 상황을 유지해온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수년 동안 해군 전력 공급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감 고조, 미-중 갈등 속 백악관 권력 교체, 그리고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로 인해 모스크바는 태평양 함대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 및 조선 인프라의 현대화와 유럽과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확장이 확실히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베트남, 미얀마,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해군 협력 분야에서의 관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초기 2-3 개의 군사기지 신설, 베트남과의 협력 재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선박을 위한 지점 확보를 위한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은 이를 방해하려 들겠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해군 무기, 드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나토 국가들과의 대립 가능성으로 인해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는 또한 인도-태평양에서도 러시아의 해군력 및 무역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NDO-PACIFIC REGION: RUSSIAN INTEREST?

Subtitle: Military campaign in the center of Europe reduces Moscow's ability to play an active role on its eastern borders

Russi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Yury Sigov

As follows from the analytical reports used by the US Congress,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strategic and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At the same time, if previously the US primacy in this region was essentially not contested by anyone, now the situation has become radically different. The priorities in foreign policy of Russia, China, India, and a number of ASEAN countries are changing.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lear division into "friendly" and "unfriendly" countries, which, according to the new classification adopted in Russia, are becoming irreconcilable rivals and even enemies.

The outbreak of the conflict around Ukraine has significantly changed Russia's inte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a big mistake to think that it was the Ukrainian crisis that became the impetus for Russia's so-called "pivot to the East". Yes, over the past three years, bilateral trade between Russia and China has reached $230 billion, and trade between Russia and India has increased sixfold. However, these figures were achieved by an unprecedented growth in Russian oil exports to both countries, this trade is conducted at huge discounts from the Russian side, and although it brings Moscow a certain monetary income, it does so at the expense of other important trade partners of yesterday.

Thus, Moscow has included Japan and South Korea, the two largest foreign trade partners in the region, in the list of “unfriendly”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aintain the toughest sanction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largely isolates it from important trade markets and creates significant tension on its eastern borders.

It is significant that if during the Cold War the Asia-Pacific region was a zone of naval rivalry between the USSR and the USA, now the picture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American political scientists have “attached” the Pacific Ocean region to the Indian Ocean basin, then in this context, on the one hand, there are now two influential Asian powers on the world map – India and China. On the other hand, they are connected through important sea arteries through interaction – including by sea – with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hat are part of ASEAN.

The waters of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wash the shores of the four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75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this region and there are large deposits of minerals that are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es of our entire planet. At the same time, the presence of large navies,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Russian Pacific Fleet today is roughly comparable to the combined power of the fleets of Japan and South Korea – the main US allies in the region) does not at all mean their complete hegemony over the main trade and transport routes.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eanwhile, the course of the conflict around Ukraine and the attack of Houthi groups in the Red Sea basin on American and British ships prove that there is a gradual revival of the importance of the so-called "mosquito fleet", with whose forces it is quite possible to cause much larger ships either serious damage or even sink them (as happened with the Russian cruiser "Moskva" in the Black Sea). And for Southeast Asia with its shallow seas and narrow straits, such a threat may really exist -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in the region. And then the main transport and trade routes of the entire Indo-Pacific basin will be easily blocked.

Before assessing the current position of the Russian Navy in this region,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assess the naval forces of other powers that have access to both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basin.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at the conflict around Ukraine, which theoretically takes place far from the main communications routes of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but in fact significantly affects Russia's naval interests precisely on its eastern borders.

For example, the Russian Pacific Fleet Marine Corps units, as well as part of its support aviation, are practically fully involved on a rotational basis in the conflict with Ukraine. Last summer, a military cooperation agreement was signed and ratified in the fall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hich implies direct military support by both parties to each other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or a threat to their sovereignty (and in the case of Ukraine, this is exactly the kind of conflict).

It is also quite obvious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Russia's main adversary both around Ukraine and in the world. Which automatically translates to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waters. Without a doubt, today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remains the hegemon not only in the Pacific, but also in the World Ocean as a whole. They have the largest and most technically equipped navy in the world, developed port and shipbuilding capacities.

After President D. Trump and his team came to power in Washington, the topic of combating the growing power of China has become fundamental for them. To combat Beijing, the Americans will use mechanisms to gradually reduce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will continue to form alliances and unions in the region that will allow Washington to partially shift the task of containing the Chinese to its closest partners (these are alliances such as Quad, AUKUS, "Five Eyes" and ANZUS).

D. Trump will make significant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all areas with India, which he sees as an important tool and counterweight to China's growing power. In the Pacific Ocean, the Americans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concept of the so-called "island chains", the first of which runs along the coasts of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the second - the same Japan, the island of Guam and down to New Guinea, and the third - along the chain of the Hawaiian Islands, the islands of Tonga and down to New Zealand.

As for China, the main oppon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it still has a relatively small navy compared to its global ambitions and the need to protect their implementation far from the Chinese shores. Meanwhile, starting from the end of the last century and thanks to the "Chinese economic miracle", Beijing was able to ensure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with the help of which it began to form a shipbuilding and port base.

Over the past ten years, the Chinese navy has been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It is capable of not only effectively ensuring the defense of the Chinese coast, but also supporting China's claims to disputed territories in the East China and South China Seas with its naval fist, as well as guaranteeing the safe passage of Chinese merchant ships in areas of pirate activity in both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Today, China has a powerful merchant navy, ensuring the export of Chinese goods to world markets, as well as one of the largest fishing fleets in the world. Beijing also actively sells or gives away its warships to "friendly countries", thereby helping them, on the one hand, to strengthen their own fleets, and on the other hand, tying these countries to itself economically.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China's geopolitical rival is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dia. It could be noted that until 1971, the beginning of a major military conflict with Pakistan,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presence in the region was modest, and Delhi had no naval ambitions either in the Indian or Pacific Oceans.

However,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India began to implement a large-scale shipbuilding program with the goal of creating powerful and modern naval forces. Now India has several aircraft carriers, a significant number of destroyers, frigates and corvettes, and is independently building its own p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with ballistic missiles on board.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India has developed fairly friendly relations with all of its closest neighbors in the region except Pakistan and China. And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Chinese presence in the Indian Ocean is actually weak and does not seriously threaten India. However, this does not prevent the Indian military and political elites from considering China to be their main competitor in the region (and not the United States).

India generally considers itself to be a kind of unofficial mistress in the Indian Ocean. And for this, Delhi is creating a network of naval bases and radar stations both on its territory and on the territories of small island states (Mauritius and the Seychelles). A key element of Indian defense are the Andaman Islands, where the Indian naval base is located, controlling the exit from the Andaman Sea to the Bay of Bengal.

According to official documents from the Indian Ministry of Defense, the country must strengthen its naval presence in the Indian Ocean in order to be able to cut off its export routes to European market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with China, as well as obtaining oil from the Persian (Arab) Gulf region.

However, this tactic was seriously called into question after the start of the Russian-Ukrainian war. Due to the fact that Russia sharply increased oil exports via pipelines to China,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d oil supplies by tankers to India several times. In addition, India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the Sagarmala program in recent years to develop ports and infrastructure within its own country.

It is interesting that if earlier in the region of both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the influence and presence of a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was noticeable, now it remains only minimal. Perhaps only France, which has its island territories in both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can really influence something in these regions. Plus, Great Britain, which maintains ties with the countrie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as well as Italy (cooperation with Eritrea and Egypt in the Red Sea region), retains a certain influence here.

Japan deserves a special mention regarding its naval presence in the Pacific Ocean region. It is the key and main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acific Ocean and an important element of two "island chains" to contain China. Even without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Japan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military potential of its Self-Defense Forces in the last decade, and its navy is approaching the number of ships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 think that when considering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cannot discount the continent-state of Australia. Yes, it is traditionally in the sphere of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a lesser extent, Great Britain, but its main trading partner is still China. And Canberra will most likely not rabidly focus only on Western allie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at the moment, Australia takes a sharply anti-Chinese position, participates in all US plans to contain China, and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rontation with Beijing,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outhern flank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The role of New Zealand in this case is practically invisible, although it fully supports the Western pos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f necessary, will provide albeit insignificant, but still assistance to a united coalition led by the United States.

Last but not least, it is worth mentioning the ASEAN countries, since they are supposedly important for the Indo-Pacific region in terms of territory and population, but in all the years of their existence as a single association, the states of the region have never created a full-fledged military alliance. Which makes this Association completely defenseles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though at least four ASEAN countries can, if necessary, significantly complicate shipping or completely block the Strait of Malacca. Moreover, Singapore with its large port and military base may play a key role in this. And even given that it is closely connected in the military sphere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unlikely that it will do anything against the will of Washington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the region.

Meanwhile, the vulnerability of China's sea routes in the event of a blockade of the Strait of Malacca may well be resolved by building a canal through the Kra Isthmus, which, on the one hand, removes Singapore from the "great game", and, on the other, sharply increases the influence of Thailand.

The Indonesia factor is also important in this case. It controls the largest number of straits in the region that connect the Pacific Ocean with the Indian Ocean. These are the Strait of Malacca, the Sunda Strait between Java and Sumatra, the Makassar Strait between Kalimantan and Sulawesi, the Bali Strait between Java and Bali, the Karimata Strait between Kalimantan and Belitung, the Molucca Strait between Sulawesi and Halmahera, and a number of others.

For ASEAN countries,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the very essence of foreign policy is not to interfere in anything, to maintain neutrality on all key disputed positions, and to maintain smooth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rying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ese states (for example,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is considering this option to put pressure on China) may be counterproductive. If the Americans exert such pressure, then the ASEAN countries will help China, which is completely disadvantageous for D. Trump and his team.

And here again it is important what position Indonesia and its new president will take in developing their naval forces - a former military man himself, and who has a good idea of the potential theater of military operations around the 17,500 Indonesian islands. And in order to be able to conduct a more or less independent policy in the region, Jakarta needs to significantly strengthen its naval forces.

At the moment, the Indonesian Navy is quite balanced, capable of patrol service and conducting anti-piracy and anti-terrorist operations in its coastal waters at most. But if an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merican-Chinese conflict begins, Indonesia will have to fight any fleet that wants to pass through the straits without its permission.

The Indonesians will then need sea drones, mobile coastal anti-ship systems, low-noise submarines with greater autonomy and powerful weapons, torpedo stations designed to operate against enemy submarines, as well as systems that provide covert remote mining (in this area, Jakarta has already asked Russia for help).

As for Russia's position in the Indo-Pacific basin, here we can only talk about Moscow's naval presence in the Pacific Ocean. To date, attempts to create a naval base in the Indian Ocean have not led Moscow to success: agreements for such a base in Sudan remain unrealized due to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that country. Moscow has not seriously considered the proposals to create a similar base from the government of Eritrea, expecting that something reliable and profitable would come out with Sudan.

But in the Pacific Ocean, several trends are visible at once that directly affect Russia's naval presence. Theoretically,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and especially with Vietnam and Myanmar, promises to be the most reliable. Meanwhile, it is also important for Russia to ensure the safety of those ships that carry Russian cargo, but fall under the category of sanctions. Thus, Russian ships have repeatedly been detained in European waters while carrying sanctioned cargo, plus they we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ports of Bangladesh and India, since they were included in the registers of US sanctions lists.

To protect these ships, the Russian authorities are currently considering options for strengthening their naval presence along the entire route, and in certain coastal areas they will ask the fleets of so-called "friendly countries" to ensure their protection (although it is not very clear who, and on what basis, Moscow can be considered such countries in the basin of either the Pacific or Indian Ocean). In addition, Russia and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region will joint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ports, the construction of terminals, which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sanctioned ships.

It is worth mentioning separatel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which, due to the rather calm situation in the region, has remained on the periphery of supply and provision of naval power for many years in comparison with the Black Sea, Baltic and Northern Fleets of the Russian Federation. Now, however, the increasing tension i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fter the change of power in the White Hous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active militarization of Japan are forcing Moscow to pay increased attention to strengthening its Pacific Fleet.

This will certainly require the modernization of the port and shipbuilding infrastructure of Vladivostok, as well as the expansion of railways connecting the European and Pacific parts of Russia. Russia will also be required to completely revise its relations in the field of nav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such as Vietnam, Myanmar, and especially Indonesia.

This also concerns the creation of two or three military bases at first (they can be called service and support points like the port of Tartus in Syria on the Mediterranean Sea, but this will not change the essence of the matter), renewing cooperation with Vietnam on the Cam Ranh base, offering the military leadership of Myanmar to create at least a service point for the ships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Navy in the Indian Ocean. And it is quite possible to negotiate with Indonesia on the sale or joint development of new types of naval weapons, in particular drones, detection and tracking systems (although the United States will certainly interfere with this very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uch).

In general, being focused on the armed conflict with Ukraine, and the quite possible confrontation with individual NATO countries in Europe, Russia will simply be forced to strengthen its posi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Otherwise, its diminishing influence will very soon affect not only its naval presence i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but also the ability to safely and reliably conduct trade in their waters.

약력

Yury Sigov 교수는 러시아 대통령 국가경제 아카데미의 국제관계 및 국제저널리즘 교수이다. 또한 모스크바의 국립 러시아인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경영 및 무역, 세계 정치, 금융 시장, 정치 및 경제 관계, 개발도상국의 외교정책, 국제무역, 인도주의 및 기타 사회 문제에 관한 35권의 저서와 10,000편 이상의 기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14개 언어로 발간해왔다.

국내외 추천 자료

- Derek Grossman, "Are America's Indo-Pacific Friends Flirting with China?" *RAND*, May 5, 2025.
- Jun Kajee, "US shifts priority to Indo-Pacific's "second island chain"—what does it mean for Taiwan?" *CEIAS*, April 01, 2025.
- Alexey Muraviev, "Moscow's Pacific Trident: The submarine arm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early 2025 to 2030," *Sea Power Center*, January 05, 2025.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보기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